

# 大學圖書館 古書室 運營의 活性化 方案

—國立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圖書館

洪 九 杓

## 目 次

- |                              |                               |
|------------------------------|-------------------------------|
| I. 緒 言                       | IV. 古書分類 方法의 改善               |
| II. 古書의 概念과 範圍               | 1. 古書의 分類方法                   |
| 1. 古書의 定義                    | 2. 古書分類上 四部分類法과<br>十進分類法의 長短點 |
| 2. 古書의 範圍 設定에 따른<br>問題點      | 3. 古書分類 方法의 改善                |
| III. 大學圖書館 古書室 運營實態 및<br>問題點 | V. 古書資料의 管理와 活用方案             |
| 1. 古書室 運營 現況                 | 1. 古書의 效率의 管理                 |
| 2. 古書室 運營上 問題點               | 2. 古書의 活用方案                   |
|                              | VI. 結 言                       |

## I. 緒 言

各 地域에 所在하고 있는 國立大學圖書館은 地方 固有의 鄉土文化를 繼承發展하는데 一翼을 擔當하여야 할 곳으로서 그 責任이 莫重하다 하겠다. 따라서 各 圖書館 마다 所藏量의 差異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가 古書를 所藏하고 이를 所重히 保存하고 있다. 그러나 古書의 評價를 財產價値로써 認識되어 管理에만 치우쳐 學問發展과 文化創造에 阻害要素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古書資料는 活用在 적었으며 古書專門司書의 確保가 어려워 貴重한 古書의 活用在 未備한 實情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古書에 대한 認識이 바뀌어 各 大學圖書館에서 古書資料를 어떻게 整理하여 運營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研究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本稿에서는 古書室 運營의 活性化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을 重點的으로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古書業務를 合理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古書의 概念과 範圍가 明確히 定해져야 하므로 이를 살펴보고,

둘째, 大學圖書館의 古書室 運營實態를 알아보고 그 問題點을 把握하여 改善方案으로서 現在 使用하고 있는 傳統的 分類方式인 四部分類 方法과 十進分類法의 長短點을 比較分析하면서 利用者가 쉽게 資料에 接近할 수 있고 電算化에 對備할 수 있는 方案을 考察하며,

셋째, 古書室利用의 增大方案으로 古書資料를 迅速 正確히 提供할 수 있는 古書의 活用方案과 效率的 管理方法을 摸索함으로써 古書室 運營의 活性化를 通하여 司書職이 專門職으로서의 位相을 設定하는 方向으로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II. 古書의 概念과 範圍

### 1. 古書의 定義

古書의 業務를 合理的이고 一貫性있게 遂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古書의 概念과 範圍가 明確히 定해져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古書의 概念과 範圍는 李載喆의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千惠鳳의 『古書分類目錄法』, 金致雨의 『古書의 傳統的 整理方法에 관한 問題와 對策』, 尹炳泰의 『韓國古書 整理法 研究』 등에서 言及한 것을 綜合하여 본다면 時代, 文字, 內容 및 裝訂에 의한 基準으로 區分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基準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時代的 基準으로 하여 우리나라 古書는 大韓帝國末期(1909) 以前에 刊行되었거나 筆寫된 것이고, 中國書는 清末(1911) 以前, 日本書는 明治(1867) 以前의 것을 古書라고 하는 境遇,

둘째, 文字를 基準으로 하여 漢文으로 著述된 책을 古書라고 하는 境遇,

셋째, 內容을 基準으로 하여 東洋의 傳統的인 固有思想과 學術의 性格이 있는 資料를 古書라 하는 境遇,

넷째, 裝訂形態를 基準으로 하여 卷子本, 帖裝, 旋風葉, 蝴蝶裝, 包背裝, 線裝 등 東裝本으로 된 책자를 古書라 하는 境遇가 있다.

또한, 基準年代 以後에 著述되어 刊行된 것과 再發刊 또는 影印, 複製된

것 중에서도 內容이 古書의 範疇에 속하는 것은 裝訂에 구애없이 모두 古書에 包含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古書의 概念과 範圍는 여러 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定義가 一定하지 않아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옳다고 하나만을 選擇하여 古書로 斷定한다면 現 古書室 運營에 있어서 여러 가지 問題가 야기되기 때문에 古書를 所藏하고 있는 各 大學圖書館에서는 運營管理上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 2. 古書의 範圍 設定에 따른 問題點

前述한 바와 같이 古書의 概念과 範圍가 一定하지 않아 古書를 所藏하고 있는 各 圖書館은 資料의 整理 및 運營·管理上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에 따른 問題點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各 基準別로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表 1>과 같이 古書範圍를 設定함에 있어서 어느 基準을 選擇하더라도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檢討한 바를 綜合하여 古書의 概念과 範圍를 定하여 본다면 文字를 基準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最善策이라 하여 하나만을 基準으로 設定한다면 역시 問題點이 야기되므로 이제까지 살펴 본 것을 勘案할 때 古書의 概念과 範圍의 基準設定은 時代, 文字, 內容, 裝訂 등을 절충하면서 그 以後에 著述된 資料와 再發刊 또는 影印·複製된 것 중에서도 內容이 古書의 範疇에 包含된다고 判斷된 資料는 裝訂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 古書의 範疇에 속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土臺로 古書의 概念과 範圍를 忠南大學校 圖書館은 어떻게 設定하였는지 살펴보면, 첫째로 外形적으로 判斷할 수 있는 毛筆手寫, 木版, 木活字, 鑄字, 石版 등의 手段으로 楮紙, 藁精紙 등과 그 외 倭紙, 中國紙 등의 옛종이에 筆寫 또는 印刷하여 卷子本, 帖裝, 蝴蝶裝, 包背裝, 線裝 등 이른바 典型的인 東裝本으로 裝訂한 것을 原則으로 하며, 둘째로 內容적으로는 東洋의 傳統的인 學術思想 制度 등의 資料를 原則으로 하

〈表 1〉 古書範圍 基準設定에 따른 問題點

基準區分	古書範圍基準內容	問 題 點	備 考
時 代	韓國：1909年 以前 中國：1911年 以前 日本：1867年 以前에 筆寫 또는 印刷 되어 刊行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準年代 以前에 刊行 著述된 것을 그 以後에 影印으로 重刊</li> <li>• 基準年代 以前에 著述된 것중 內容과 形態上으로 現代書의 性格이 있는 것</li> <li>• 基準年代 以後에 漢文으로 著述하여 發刊한 많은 實記나 文集</li> </ul>	
文 字	漢文으로 著述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날의 한글(古語), 日本語, 蒙古語, 滿洲語, 其他東洋諸國語로 著作된 책들이 古書로 包含되어야 함</li> <li>• 漢文과 中國의 現代語(白話文)의 識別에 어려움</li> </ul>	安 東 大 成 均 館 大
內 容	東洋의 傳統的인 固有 思想과 學術을 다룬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西歐人의 著述 中에는 東洋의 學問이 아닌 것으로 漢譯된 것</li> </ul>	
裝 訂	卷子本, 帖裝, 旋風葉 蝴蝶裝, 包背裝, 線裝 等 東裝本으로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代人의 著作중 古典의 內容이 아니면서 著者의 趣味에 따라 東裝本으로 製作</li> <li>• 옛 古書를 現代에 와서 影印하여 洋裝本으로 製本 出刊한 책</li> </ul>	慶 北 大 서 울 大 全 南 大 忠 南 大

나 西洋書도 그 範圍에 들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時代的으로는 우리나라 古書는 1909年 以前, 中國書는 清末(1911) 以前, 日本書는 明治末期(1867) 以前, 西洋書는 1914年 以前에 漢字를 비롯한 옛날의 한글(古語), 日本語, 蒙古語, 滿洲語 및 其他文字로 東洋在來의 傳統的인 形式에 의해 從書로 手寫 또는 印刷된 典型的인 東裝本은 물

론이요 1910년 以後에 著述된 資料와 再發刊 또는 影印複製된 것 중에서도 內容이 古書의 範疇에 包含된다고 判斷된 資料는 裝訂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 古書의 範疇에 속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 외에도 非圖書資料로서, 書, 畫 等 額子, 簇子, 彫刻版畫 등도 古書範圍에 包含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古書의 概念과 範圍를 定하여 됨으로써 古書의 整理와 管理 運營을 合理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古書의 概念과 範圍를 土臺로 古書의 對象이 되는 資料에 대하여 古書의 利用 研究에 대한 活性化 方案을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Ⅲ. 大學圖書館 古書室 運營實態 및 問題點

#### 1. 古書室 運營 現況

##### 가. 主要 國立大學 圖書館 古書室 運營 現況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은 大部分이 古書를 所藏하고 있으며 所藏資料數에 따라 一般圖書와 統合 또는 別途管理하는 境遇가 많다. 이에 따라 筆者는 各 國立大學圖書館은 古書室을 어떻게 運營하고 있는지 그 實態를 알아보기 위하여 全國의 國立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하여 보았다.

그 結果 大規模 大學圖書館은 大部分 別途의 古書室을 運營하여 擔當職員까지 配置하면서 效率的으로 運營하고 있었으며, 小規模 大學圖書館들의 古書資料는 비록 貧弱할 지라도 別途로 管理하고 있으면서 運營은 職員을 尙상 固定配置하지 않고 다른 業務와 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古書를 전혀 所藏하고 있지 않은 圖書館도 있었으며 많은 圖書館이 古書資料가 있어 할 수 없이 古書를 管理 運營하고 있는 實情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古書를 利用하는 사람은 극히 一部分으로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圖書館이든 古書는 一般圖書에 比하여 人力 및 財政的 支援이 微弱한 편이었다. 그러면 各 大學圖書館에서는 古書資料를 어떻게 管理하고 運

營하는지 設問調査 內容을 根據로 살펴보면 <表 2>와 같다.

<表 2>와 같이 國立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살펴보면 大規模 國立圖書館과 小規模 圖書館과의 古書資料現況 및 運營實態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古書資料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運營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別途의 室을 마련하여 科學的인 保存方法으로 古書에 專門

<表 2> 國立大學 圖書館 古書室 運營 現況

大學別	全藏書數	古書數	職 員	分類表	管理形態	閱覽方式	備 考
江原大	278,666	未登錄	兼務	未整理	統合管理	閉架制	진열장에 보관
慶北大	498,750	14,924	司書	DDC15	別途管理	閉架制	
慶尙大	219,140	10,100	司書	四分法	別途管理	閉架制	
釜山大	526,367	15,398	司書	四分法	別途管理	閉架制	
서울大	1,421,377	209,163	司書 8名	四分法	別途管理	閉架制	冊板 18,000여장
全南大	339,972	20,900	司書 機能	四分法	別途管理	半開架制	
全北大	323,245	9,800	機能	DDC16	別途管理	開架制	十進法適用
濟州大	178,627	160	機能	KDC3	統合管理	閉架制	
忠南大	350,000	16,967	機能	四分法	別途管理	開架制	
忠北大	228,688	2,043	兼務	KDC3	別途管理	閉架制	
教員大	122,750	17	"	DDC19	別途管理		
木浦大	79,749	704	機能	KDC	別途管理	開架制	
公州大	113,800	223	兼務		別途管理	閉架制	十進法適用
順天大	49,590	76	兼務	四分法	統合管理	閉架制	
安東大	82,157	4,500	司書	KDC3	別途管理	開架制	
公州教	58,307		兼務	DDC16	別途管理	閉架制	
全州教	39,820	57	兼務	KDC	統合管理	開架制	
清州教	34,510	377	"	KDC	"	開架制	

※ 上記表의 資料現況은 『國立大學圖書館報 第8輯』과 『韓國圖書館統計 1989』등을 補充 參照한 것임.

의 知識이 있는 司書가 擔當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講究方案으로써 같은 地域에 所在하고 있는 大學間에는 古書資料를 가장 많이 所藏하고 있는 大規模 大學圖書館에서 取合하여 統合管理 및 運營하는 것이 古書資料의 合理的인 管理와 利用 研究에 대한 活用을 보다 效率的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忠南大學校 圖書館 古書室 運營 現況

이제까지 國立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古書業務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中央에 位置하고 있는 忠南大學校 圖書館에서는 古書室을 어떻게 運營하고 있는지 그 現況을 살펴 보고자 한다.

古書室의 面積은 80坪 規模로 本館 4層에 位置하고 있으며 古書管理 機資材인 恒溫恒濕機를 具備하고 있어 比較的 科學的인 方法으로 管理하고 있는 편이다. 이곳에 所藏되어 있는 古書의 蒐集方法은 購入과 寄贈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購入은 적은 편이고, 各出版社, 各門中 및 個人的으로 古書を 所藏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寄贈을 받고 있다.

이렇게 蒐集된 古書資料는 現在 3,510種 17,649冊으로 總, 經, 史, 子, 集의 五部分類法을 受入順으로 整理하였다. 또한 카드作成은 事務用 및 閱覽用으로 作成하며 作成順序에 있어서는 文庫가 設置된 古書を 먼저 文庫에 標示(例 東喬, 回想 등)하고 各部 즉 總, 經, 史, 子, 集 등을 記錄한 後 受入順 番號를 賦與하여 준다. 그리고 書名, 著者, 出版年度, 板本, 冊數, 規格, 版心, 行數, 註, 字數, 登錄番號 등을 記入한다.

이상의 作業을 마치면 부표를 붙여 各部別의 受入順으로 排列한다. 利用方法은 半開架制로 運營하되 利用者는 職員의 案内를 받아 利用하고 資料는 職員이 直接 찾아준다. 館外貸出은 禁止하고 있으며, 複寫를 願하는 사람은 複寫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複寫는 部分複寫만 可能하도록 되어 있다.

古書資料의 利用 現況은 一日平均 利用者가 20名 程度로서 教職員과 大學院生이 大部分이나 古典籍에 관한 學問을 研究하는 學科에서의 教授들이 수시로 課題物을 賦與함으로써 古書資料를 利用하는 學部生도 많이 있다.

이러한 學科들은 주로 文獻情報學科의 書誌學分野, 漢文學科, 中語中文學科, 國史學科, 國語國文學科, 哲學科 등 주로 人文科學分野의 學科에서

많이 利用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本 古書室에는 貴重圖書 95種 307冊, 稀貴圖書 273種 1,252冊을 選定하여 別途로 管理하고 있으며 이러한 資料에 限하여 複寫本을 만들어 利用者가 번거로운 節次없이 資料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貴重圖書 및 稀貴圖書에 대한 範圍와 管理·運營에 따른 諸般事項은 忠南大學校附屬圖書館 規程 施行細則에 別途로 定하여 두고 이에 따라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그러면 忠南大學校 圖書館은 古書資料를 어느 程度 所藏하고 있는지 資料別 現況을 살펴보면 <表 3>과 같다.

<表 3>의 資料現況은 現在 古書室에서 所藏하고 있는 것으로서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種類로 區分할 수 있는 데 그것은 즉 漢籍本과 洋裝本이다.

또한 古書蒐集을 擴大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寄贈者의 文庫를 別途로 備置 管理 運營하고 있으며 隣接된 곳에 族譜·書畫資料室을 別途로 設置하였다.

이와 같이 古書室에는 多樣한 種類의 資料로 構成되어 있어 資料管理

<表 3> 忠南大學校圖書館 古書資料 現況

部 別	種 數	冊 數	備 考
總 部	105	1,401	貴重圖書：95種 307冊
經 部	317	1,714	稀貴圖書：273種 1,252
史 部	1,333	5,786	冊으로 選定된 것도 包
子 部	647	2,651	含되었음
集 部	1,108	6,097	
小 計	3,510	17,649	
洋 裝 本	回想文庫	754	
	恒齊文庫	739	
	譜典文庫	594	
	其他圖書	4,001	四庫全書：3,500冊包含
複 寫 本	273	1,252	貴重, 稀貴, 毀損圖書
總 計	3,783	24,989	



및 利用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어느 程度 專門的 知識을 갖춘 職員이 擔當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本館에서도 比較的 漢文學에 知識이 있는 職員을 配置하고 있으나 現在 1名 만으로 古書業務를 擔當하고 있어 古書室을 活性化하기에는 未洽한 實情에 있다.

## 2. 古書室 運營上 問題點

古書資料가 漸次 增加함에 따라 古書室을 보다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는 古書의 蒐集, 整理, 保存, 利用 등의 業務를 體系的으로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大學圖書館이 豫算 및 人力의 不足으로 古書室 運營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있는 實情이다. 왜냐하면 各圖書館마다 古書資料를 利用하는 사람이 적어 여기에 支援하는 豫算과 人力을 적게 策定하기 때문이나 古書의 貴重함을 認識하여 보다 關心있는 管理 運營이 요구된다.

### 가. 古書管理와 活用上 問題點

古書의 效率的 管理와 活용面에 있어서도 于先 古書室을 運營하는데 職員 1名 만으로 擔當한다는 것은 단지 古書를 지키는 사람으로밖에 認識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現在 古書 利用者가 一般圖書에 比하여 극히 적은 숫자라고 古書室을 現在와 같은 狀態로 繼續 運營한다면 더욱 더 古書利用者는 減少하게 될 것이고 資料利用價値도 漸次 떨어지게 되어 古書資料가 無用之物이 되지 않을까 念慮되는 바이다.

이에 따라 古書室을 活性化하는 諸方案을 摸索하여 利用者를 增大시키는 方向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나. 古書資料 整理上 問題點

現在 古書를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이 大部分 傳統的 分類法인 四部分類法과 四分改修法을 적용하든지 또는 十進分類法을 選擇하여 整理하고 있어 古書資料數가 漸次로 增加함에 따라 이러한 方法으로는 傳統的 分類法의 限界로 利用者에게 迅速·正確한 資料를 提供할 수 없고, 또한 電算化가 擡頭됨에 따라 古書資料의 電算化에 적용할 수 없는 問題가 상당히 있

어 限界를 더욱 切實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古書를 적게 所藏하고 있는 小規模 大學圖書館은 一般圖書에 적용하여 整理하고 있는 各種 十進分類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方法 역시 더욱 使用하기가 困難하다.

왜냐하면 古書資料는 中國을 비롯한 東洋諸國語로 構成된 것이 大部分이므로 이에 적용하기는 여러 問題點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點들이 있어 古書室 運營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에 대한 改善策으로써 四部分類法과 十進分類法을 절충하여 使用할 수 있는 方法을 重點的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 IV. 古書分類 方法의 改善

前述한 바와 같이 古書資料가 漸次 增加함에 따라 傳統的 古書分類方法에 限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圖書館電算化가 擡頭됨에 따라 더욱 切實하게 되었고 또한 一般圖書에 주로 적용하여 使用되고 있는 十進分類法 역시 古書整理業務에는 상당한 問題點이 야기된다. 이에 따라 本章에서는 古書分類方法의 改善에 따른 諸般事項을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1. 古書의 分類方法

本來 圖書의 分類法에 관하여는 劉歆의 七略 以後 四部分類, 四分改修法 등 많은 變遷을 가져 왔는데 現代에 와서는 十進分類法을 비롯하여 獨自의 展開法이 採擇 多種多様な 分類法을 使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古書分類는 주로 四部分類法이나 四分改修法을 適用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본래 古書資料가 漢文 및 其他東洋諸國語로 되었으며 아울러 四部分類法 자체도 中國을 바탕으로 組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古書의 資料가 漸次 增加함에 따라 傳統的 古書分類方法에 依存한다는 것에 限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圖書館電算化가 擡頭됨에 따라 圖書館藏書의 一部인 古書資料를 電算化에서 除外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一般圖書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十進分類方法을 使用하고 있는 圖書館도 상당히 많은데 이는 古書資料數가 比較的 적은 小規模 大學圖書館 들인 것이다. 그러나 十進分類法은 主題檢索 등이 容易한 點도 많이 있지만 資料分類時에 한 主題에 너무 치우쳐 資料의 管理 및 利用에 어려운 點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合理的인 整理方法으로 利用者가 쉽게 資料를 찾아볼 수 있는 分類方法으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2. 古書分類上 四部分類法과 十進分類法の 長短點

現在 古書を 所藏하고 있는 大規模 國立大學圖書館에서는 傳統的 分類方法인 四部分類法과 四分改修法을 적용하여 整理하고 있으며 이와는 反對로 小規模의 國立大學圖書館에서는 주로 十進分類方法을 採擇하여 一般圖書와 함께 整理하여 統合管理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勸案하여 傳統的 四部分類法과 現代式 十進分類法을 古書資料整理業務에 적용함으로써 各其 어떠한 長短點이 있는지 이것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表 4>와 같다.

<表 4>에서 四部分類法과 十進分類法の 長短點들을 比較 分析한 바와 같이 이들 分類法을 各其 獨立的으로 적용하여 使用한다면 여러 가지 問題點이 야기되어 古書室 運營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改善策으로써 四部分類法の 長點과 十進分類法の 長點을 절충하여 使用할 수 있는 方法을 模索하고자 한다.

## 3. 古書分類 方法의 改善

現在 使用하고 있는 古書分類 方法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어 이에 대한 講究策으로써 圖書館電算化에 對備할 수 있고 利用者가 主題別 접근이 可能할 수 있도록 四部分類法에 十進分類法을 導入 절충하는 方案을 模索할 수 있다.

이러한 方法에 대하여는 現在 몇몇 圖書館에서 使用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忠南大學校 圖書館의 事例를 中心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表 4〉 四部分類法과 十進分類法の 長短點 比較表

區分	長 點	短 點
四 部 分 類 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分類方法이 簡單하여 記憶하기 쉽고 整理가 便利함</li> <li>• 傳統的 東洋文化를 原形 그대로 集約的으로 分類가 可能</li> <li>• 東洋學 專門圖書館에 適合</li> <li>• 東洋學에 관한 知識이 있으면 整理業務가 可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分類組織이 簡單하여 檢索 不便</li> <li>• 中國 以外的 東洋諸國古典과 西洋學을 收容할 수 없음</li> <li>• 實際보다 名分을 爲主로 함</li> <li>• 分類法の 類門이 主題의 理論的體系로 未展開</li> <li>• 類屬의 名詞중 概念의 理解 困難과 分類項目이 不足</li> </ul>
十 進 分 類 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主題爲主로 組織되어 主題別 檢索이 可能</li> <li>• 學問 全分野의 網羅로 單一分類法으로 處理 可能</li> <li>• 展開性과 助記性이 豊富</li> <li>• 相關索引으로 表의 使用便利</li> <li>• 同一한 主題나 關聯主題가 한 곳에서  쉽게 檢索이 可能</li> <li>• 分類法에 使用된 用語概念이 整然하여 理解가 容易</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洋學이 體系的으로 未展開</li> <li>• 東洋學에 관한 主題의 適應이 不適當</li> <li>• 東洋學에 관한 主題의 展開가 不充分</li> <li>• 東洋學에 관한 主題가 細目에 位置하고 있어 分類記號가 긴 弊端</li> <li>• 組織이 複雜하여 分類者의 專門的 教育이 必要</li> </ul>

忠南大學校 圖書館은 總, 經, 史, 子, 集 등의 五部分類 方法을 採擇 使用하였는데 前述한 바 있는 여러 가지 問題點으로 十進分類 方法을 導入하기로 決定하여 “서울大學校 奎章閣 圖書管理室 古書分類表”, “高麗大學校 圖書館 古書分類表”, “成均館大學校 圖書館 古書分類表” 등의 分類表를 參考로 하고 다음과 같은 基本方針을 세워 “忠南大學校 圖書館 古書分類表”를 새로이 만들었다.

[基本方針]

1) 本 分類表는 古書를 分類·整理함에 從來의 四部分類法과 十進分類

法の 關聯性을 比較 勘案한 方法으로써 古書의 整理와 閱覽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力點을 둔다.

- 2) 既存 四部 分類法으로 整理된 資料는 再分類를 實施한다.
- 3) 部別은 總, 經, 史, 子, 集 및 古文書部로 區分한다.
- 4) 類別은 部別 아래에 數字로 記號化 하였으며 十進分類法을 適用한다.
- 5) 類別 아래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細分한다.

例: 史800 傳記類

810 韓國人傳記之屬

811 韓國人別傳

이러한 方針에 依據 <表 5>와 같이 “忠南大學校 圖書館 古書分類表”를  
만들어서 四部分類法에 의하여 整理된 既存 目錄카드를 모두 再分類하여  
主題別로 排列하였다.

<表 5>의 古書分類表는 類別까지만 例示하였으며 實際上 本 分類表는  
內容에 따라서 類·綱·目까지 細部 分類하였다.

忠南大學校 圖書館에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古書分類表를 만들어 既存  
目錄카드를 再分類하여 古書利用者가 쉽게 資料를 利用할 수 있도록 主題  
別로 排列하였으며 아울러 古書의 管理에도 상당히 便利하였다.

왜냐하면 主題別 檢索이 可能하여 利用者가 資料를 찾고자 할 때 以前  
에 使用하던 四部 分類法보다는 쉽게 資料에 접근할 수 있었고, 擔當職員  
역시 利用者가 要求하는 資料를 迅速·正確하게 提供할 수 있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分類作業을 위해서는 반드시 漢字解讀  
의 能力과 古書業務에 專門的 知識이 있는 職員이 業務를 擔當하여야만이  
效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古書資料의 管理와 活用方案

### 1. 古書의 效率的 管理

古書를 어떻게 管理하느냐에 따라 古書室 運營에 상당한 影響을 주고 있  
다. 왜냐하면 古書는 一般圖書와는 달리 주로 祖上의 遺蹟을 個人이 所藏

〈表 5〉 忠南大學校 圖書館 古書分類表

總 部	經 部	史 部
總000 總部 總類	經000 經部 總類	史000 史部 總類
總100 全書類	經100 易類	史100 韓國史類
總200 叢書類	經200 書類	史200 中國史類
總300 事彙類	經300 詩類	史300 日本史類
總400 字彙類·語彙類	經400 禮類	史400 其他諸國史類
總500 韻書類	經500 春秋類	史500 政法類
總600 小學類	經600 孝經類	史600 地理類
總700 訓蒙類	經700 四書類	史700 目錄類
總800 雜輯類		史800 傳記類
總900 雜誌·新聞類		史900 系譜類
子 部	集 部	古文書部
子000 子部 總類	集000 集部 總類	古000 古文總類
子100 儒家類	集100 韓國人叢集類	古100 韓國人古文
子200 釋家	集200 中國人叢集類	古200 中國人古文
子300 其他宗教類	集300 日本人叢集類	古300 日本人古文
子400 雜家類	集400 其他諸國人文集類	
子500 天文類	集500 詩文評類	
子600 醫家類	集600 詞曲類	
子700 農家類	集700 隨筆類	
子800 正音·譯學	集800 小說類	
子900 兵家類	集900 尺牘類	

하고 있다가 圖書館에 蒐集되었기 때문에 資料의 原形이 一部 毀損되었거나 또는 時代的으로 오래되어 管理 및 利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古書資料를 管理하기 위해서는 古書에 대한 專門의 知識과 細心한 注意로써 別途의 管理方法이 必要한 것이다. 이에 本章에서는

古書의 效率의 管理方法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가. 古書資料 保存方法

古書室에는 恒常 溫度와 濕度を 適正하게 維持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古書資料는 一般圖書에 비하여 數十年 또는 數百年이 지난 關係로 심한 乾燥에서 오는 脆弱化 그리고 變形이나 腐蝕 等 毀損의 憂慮가 있어 保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講究策으로써는 보다 科學的인 保存方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科學的이고도 傳門的인 保存方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심한 乾燥와 過濕에서 오는 資料의 脆弱化는 古書室에 恒溫恒濕機를 設置하거나 除濕機를 具備하여 주어야 하고,

둘째로 資料가 벌레나 곰이 먹지 않도록 이를 撲滅하기 위해서는 藥劑(예: 친궁)를 항시 서가에 놓아두고 아울러 年間 2, 3回 程度는 燻蒸消毒의 實施로 原形이 毀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管理 및 利用에 便利할 것이다.

셋째로 古書資料를 光線에 의하여 變形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古書를 保存하고 있는 곳에서 光線을 피할 수 있는 차광이 반드시 必要한데 이때에는 두텁고 어두운 색상의 커튼으로 차광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複寫本 製作

各 圖書館마다 古書중에는 稀貴本 및 貴重書를 所藏하고 있는데 이러한 資料들은 대개 公開하기를 回避하여 資料利用上 여러 가지 節次를 밟아야 하는 境遇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資料들은 複寫本을 만들어서 原本은 別途管理하고 複寫本으로 活用하는 方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利用者가 不必要한 節次를 밟지 않고 資料를 利用할 수 있어 便利하고 또한 別途管理함으로써 效率的인 保存 管理가 되어 繼續的인 古書資料 活용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 다. 古書資料의 再製本

古書를 效率的으로 保存 管理 및 活用하기 위해서는 毀損 및 마모된 部分을 補修 整備하여야 한다. 특히 古書資料는 毀損 또는 마모된 것이 많아 이러한 資料들은 겉표지의 書名·著者 등의 事項들이 없어서 管理와 利用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古書의 이러한 特殊性을 勘案하여 單권으로 묶어 주는 再製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古書資料들은 1冊으로 된 것이 거의 없고 두권 이상으로 構成되어 있어 管理 및 利用에 不便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古書資料를 科學的이고도 專門的인 方法으로 效率的인 保存 管理가 이루어 진다면 아직까지 圖書館에 寄贈하지 않고 個人的으로 古書を 所藏하고 있는 사람들의 寄贈이 한층 더 많아질 것으로 期待되며 아울러 資料의 增加 規模도 擴充됨에 따라 古書室이 더욱 活性化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古書의 活用方案

### 가. 古書資料 專門司書의 確保

古書資料를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專門知識을 갖고 利用者가 要求하는 參考質疑를 明快하게 答辯할 수 있는 擔當職員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圖書館은 그러하지 못하고 古書가 있어 할 수 없이 運營하는 部署가 되어버려 自然히 이곳에 配置되는 職員도 專門知識이 없는 境遇가 많다. 따라서 利用者도 적고 아울러 이에 대한 여러 가지 支援策도 없는 無關心 속의 部署로서 放置되어 있는 實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古書室이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于先的으로 特殊文字로 構成된 古書資料에 상당한 專門的 知識과 漢文解讀이 가능한 有能한 職員을 배치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古書業務를 擔當하는 직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大學의 漢文學에 關聯된 學科에 委託教育의 方法과 市內私設 漢文學院에서 受講할 수 있도록 하여 古書資料 關聯分野의 知識涵養을 위하여 恒常 研究하면서 責任性있는 姿勢로 勤務할 수 있도록 圖書館 政策에 劃期的인 支援策이 講究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나. 古書綜合目錄作成

古書綜合目錄은 資料의 所藏을 알려 주는 것으로 相互貸借의 前提가 되고 利用者에게 便宜를 提供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古書綜合目錄은 現在까지 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하여 大規模 大學圖書館에서 發刊된 것이 몇 개 있는데 극히 적은 숫자이다.

이렇게 發刊된 古書綜合目錄은 各 圖書館에서는 물론이요 研究家나 學者들에게까지 크나큰 貢獻을 하게 될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各 大學圖書館은 現在 自館에서 所藏하고 있는 古書資料만이라도 目錄을 作成하여 줌으로써 利用者의 古書利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漏落된 것 등은 補完하여 古書利用者에게 積極的인 奉仕가 이루어져 古書室 運營을 活性化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 다. 古書解題 事業의 推進

古書資料는 文字의 特異性으로 一般利用자가 利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古書資料의 利用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쉽게 資料를 利用할 수 있도록 古書解題書가 필요하다. 이러한 解題書는 古書의 利用을 增大시킬 수 있는 2次 情報源으로써 가장 重要한 道具인 同時에 索引이나 抄錄보다도 더 한층 高次元의인 書誌類이며 또한 參考書誌分野의 奉仕業務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아울러 專門的인 知識이 要求되는 作業이라 할 수 있다.

現在 古書解題本은 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하여 수개의 大學圖書館에서 冊子形態로 刊行되었거나 그 外 圖書館에서는 自館實情에 맞는 古書解題를 하여 利用者에게 資料를 提供하여 주고 있다. 또한 各 圖書館에서 貴重圖書類를 展示會할 때에 對象圖書를 解題하여 간략한 pamphlet式으로 發刊된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境遇라 하겠다.

그러면 古書解題 作業은 어떠한 方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古書解題 作業은 다음과 같은 基本方針에 따라 實施한다.

## 〔基本方針〕

- 1) 目錄카드의 書誌記述事項을 그대로 作成하여 준다.
- 2) 序文, 跋文 그리고 參考文獻에 의하여 古書의 著作과 成立에 關係되는 事項을 記錄한다.
- 3) 古書의 內容과 目次를 紹介하여 준다.
- 4) 古書의 著作者와 篇者 그리고 刊行, 配布, 傳來에 關係되는 人物들의 傳記資料들을 紹介한다.
- 5) 同一한 古書의 異本에 대한 版本學的 調查結果를 記錄한다. 이때 圖書館의 古書나 文獻상의 記錄을 찾아 比較하여 준다.

이러한 基本方針을 세워 解題作業을 實施한다면 古書資料 利用者가 資料를 利用할 시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忠南大學校 圖書館 古書解題 作業을 어떠한 方法으로 하는지 그 예를 들면 <表 6>과 같다.

<表 6>과 같이 古書解題 作業을 實施하고 있어 利用者가 資料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貴重書 만을 모아서 解題한 書目的 發行도 있는데 이러한 解題書

<表 6> 古書解題方法例 古書解題 카드

書名	주역전의 대전		貴 3	經 2	
	周易傳義大全		表 題	周 易	
著者	胡廣 奉勅撰		歷 朝	明	
冊數	24 卷 14 冊	版 種	壬 辰 字 本	刊年	1777(正祖元年)
規格	34.3 x 21.5 cm		四 周 單 邊		
半郭	25 x 17 cm 10行 18字		註 雙行 上下向 魚尾		
<p>五經의 하나로 第1位에 놓여지는 古代 中國의 儒家 經典이다. 陰陽의 그 原論을 가지고 天地間의 萬象을 說明한 것으로써 未來占을 치는 것을 비롯하여 政治哲學과 道德原理의 理念을 말하고 宇宙原理와 人間에의 縮小原理 등을 說明하고 있다.</p>					

를 통하여 自館에서 所藏하고 있는 古書를 解題할 때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古書解題 作業을 實施함으로써 一般利用者가 古書資料를 利用할 境遇 願하는 資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古書解題 作業을 實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古書資料에 專門的 知識이 있는 古書專門司書나 古書資料를 解題할 수 있는 專門家가 切實히 要求되는 것이다. 따라서 圖書館에서는 古書室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古書에 專門的 知識이 있는 職員을 配置하는 것이 于先의으로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古書室 運營을 活性化하는데 지대한 影響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 VI. 結 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現在 各 大學圖書館에서 運營하고 있는 古書室이 다른 部署에 比하여 豫算 및 專門人力의 不足으로 古書室 運營이 圓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點을 勘案할 때 古書室을 活性化하기 위한 方案으로 다음과 같이 結言코자 한다.

첫째, 古書室 業務를 合理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古書의 概念과 範圍를 明確히 設定하는 것이 必要하고 이에 따라 時代, 文字, 內容 및 裝訂 등을 基準으로 하는 方法을 절충하였다.

둘째, 各 國立大學圖書館의 古書室 運營實態를 把握하여 그 問題點을 導出시켜 본 結果 于先 時急한 것이 古書資料의 合理的인 整理方法과 科學的인 保存·管理 그리고 資料의 活用이었다.

셋째, 古書資料를 利用者가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一貫性있는 恒久的인 方法으로 整理하기 위하여 四部分類法에 十進分類法을 적용하는 方案으로 轉換하는 것이다.

넷째, 古書資料의 永久的인 保存·管理 方案을 摸索함으로써 利用에 便宜를 圖謀하는 한편 아울러 資料의 活用을 위하여 古書專門司書의 確保, 古書綜合目錄作成 그리고 古書解題作業을 推進함으로써 古書資料 利用者

를 增大시키는 方案으로 模索하였다.

이와 같이 大學圖書館 古書室을 運營한다면 古書資料 利用者는 漸次 增加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古書室에 대한 重要性이 認識되어 財政的 支援과 古書專門司書 職員의 配置 등이 政策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한 改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古書室의 活性化를 期待할 수 있어 우리 司書職이 專門職으로 더 한층 발돋움 할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 參考文獻

1. 白 麟, 韓國圖書館史 研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1.
2. 尹炳泰, 韓國古書整理法 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3. 李丙洙, 圖書分類法の 比較와 分類의 實際. 서울, 內外文化社, 1977.
4.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上).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5.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國立大學圖書館報. 서울,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1990.
6. 韓國圖書館協會,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9.
7. 金致雨, “古書의 傳統的 整理方法에 關한 問題와 對策”. 論文集, 第14輯, 釜山, 釜山女子大學, 1983. pp463-480.
8. 申學均, “國立中央圖書館에 있어서의 古書蒐集과 管理”. 國立中央圖書館 開館60週年 紀念論文集,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84. pp.73-81.
9. 梁大淵, “古典의 定義와 그 內容의 分類”. 민족문화, 창간호,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5. pp.7-20.
10. 李啓晁, “古典籍 整理의 方向”. 민족문화, 제 2 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6. pp.6-14.
11. 李正熙, 四部 分類法の 成立過程에 關한 研究.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4.
12. 李載喆,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민족문화, 창간호,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6. pp.21-41.
13. 任東彬, 古書의 十進分類의 接近. 淸州, 淸州大學校大學院, 1985.
14. 趙潤相, “古書籍의 科學的 保存”. 奎章閣, v.2,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pp.1-9.